

# 《昌德宮營建都監儀軌》 解題

金 滄

## 1.

이 책의 도서번호는 〈奎 14318〉으로 분량 1책(134매)의 필사본이다. 크기는 45.0×32.5cm이다. 1833년에서 1834년에 걸쳐 창덕궁의 화재로 燒失된 殿閣(大造殿·澄光樓·熙政堂 등) 및 回廊의 보수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의궤<sup>1)</sup>)이다. 체제는 座目·時日·圖形·承傳(附上樑文, 儀註)·物力區劃·移文·來關·稟目(附式例)·甘結·實入·賞典·工匠·儀軌의 순이다.

창덕궁의 영건을 살피기 앞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궁궐의 영건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대표적 궁궐의 영건상황<sup>2)</sup>

경복궁	1395창건	1554중건	1592중건			1865중건
창덕궁	1405		1592	1607		1833중건
창경궁						1833중건
경희궁						1831중건
덕수궁						1902
						1907
인경궁				1617창건		
				1625철거		
왕 조	태조			광해군		고종
시 기	1350	1450	1550	1650	1750	1850
						1950

〈표 1〉에 보이듯이 조선시대의 궁궐들은 임난과 같은 국난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으며, 광해군대 이후 재건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손

\*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과정.

1) 조선시대 의궤류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은 朴炳善의 《조선조의 의궤》(1985)를 참고하면 된다.

2) 이강근, 1993 《한국의 궁궐》(대원사) p.96참조.

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한말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부분적으로 화재가 발생,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1833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대조전·회정당 등 전각들과 그 주변의 회랑이 소실되었다.

현재 규장각에는 궁궐의 영건에 관한 의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景福宮에 관한 영건 의궤는 《景福宮昌德宮增建都監儀軌》〈奎 14230~14235, 14919〉가 있다. 내용은 1900년(光武 4) 경복궁과 창덕궁의 선원전 제1실을 증건한 기록이다. 둘째, 昌德宮에 관한 기록으로는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奎 14912〉가 있다. 1652년(孝宗 3) 3월에 있었던 창덕궁과 창경궁의 영건 기록이다. 그리고 《仁政殿營建都監儀軌》〈奎 14334, 14337〉로 1803년(純祖 3) 12월에서 1804년(純祖 4) 12월까지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을 영건한 기록이다. 인정전의 중수에 관한 것으로 《仁政殿重修儀軌》〈奎 14338, 14343〉가 하나 더 있다. 1857년(哲宗 8)에 인정전을 중수한 기록이다. 그리고 경복궁과 함께 영건한 《景福宮昌德宮增建都監儀軌》〈奎 14230~14235, 14919〉가 있다. 셋째, 昌慶宮 영건에 관한 의궤는 《昌慶宮修理都監儀軌》〈奎 14915, 14322, 14355, 14356〉가 있다. 1633년(仁祖 11) 창경궁을 수리한 기록이다. 그리고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奎 14912〉는 東闕이라 통칭되었던 창덕궁과 함께 1652년(孝宗 3) 3월의 修理 기록이다. 《昌慶宮營建都監儀軌》〈奎 14324~14327〉는 1830년(純祖 30)~1834년(純祖 34) 창경궁을 영건한 기록으로 1830년 燒失된 歡慶殿, 景春殿, 養和堂, 涵仁亭의 영건 기록이다. 넷째, 慶熙宮의 영건 기록으로 《西闕營建都監儀軌》〈奎 14350~14352〉가 있다. 1830년(純祖 30) 水災로 파손된 경희궁을 영건한 기록이다. 다섯째, 德壽宮의 영건 기록으로는 《眞殿重修都監都監都廳儀軌》〈奎 14913〉와 《眞殿重建都監儀軌》〈奎 14241, 14242, 14917, 14239〉로 앞의 것은 1748년(英祖 24) 덕수궁의 선원전을 중수한 기록이고 뒤의 것은 1901년의 기록이다. 그리고 《中和殿營建都監儀軌》〈奎 14345~14349〉는 1901년(光武 5)~1902년(光武 6) 덕수궁의 正殿인 중화전을 영건한 기록이다. 여섯째, 景慕宮의 영건 기록은 《景慕宮改建都監儀軌》〈奎 13633〉로 1776년(英祖 52) 사도세자의 묘를 증건한 기록이 있다. 일곱째, 慶運宮의 영건의궤는 《慶運宮營建都監儀軌》〈奎 14328~14330, 14332, 14918〉로 1904년(光武 8)~1906년(光武 10)의 증건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永禧殿의 증건 기록으로는 《南別殿重建廳儀軌》〈奎 14353〉는 1677년(肅宗 3), 《南殿增建都監儀軌》〈奎 14354, 14920〉 1858년(哲宗 9), 《永禧殿營建都監儀軌》〈奎 14243, 14244, 14246~14249, 14916〉 1900년(光武 4)의 기록이 있다. 한편 궁궐의 영건 의궤 이외도 宮闕 關聯 기록으로 《景福宮誌》〈古5120~32〉·《景春殿記》〈奎 10227〉·《宮闕誌》〈奎 3950〉·《宮闕誌》〈奎 11521〉·《東闕圖形》〈奎 9980〉·《北闕圖形》〈奎 9978〉·《北闕後園圖形》〈奎 9979〉 등이 참고된다.

## 2.

昌德宮의 연혁<sup>3)</sup>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離宮으로 창건되었으나 임란 때 정궁인 景福宮이 소실되어 조선 말에 복구될 때까지 약 300여년간 역대 임금이 昌德宮에서 정사를 봄으로써 本宮의 역할을 하였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하여 동궐이라 불렀다. 《宮闕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05년 조선초기에 한양 천도가 있던 때에 태종이 즉위하여 도성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이궁의 조성을 명하였다. 세조 즉위시 인정전을 지었으며, 그외 다른 전각들을 고치고 이름을 다시 지었다. 임란시 불에 탄 것을 광해군대에 복구, 1609년 중건되었다. 인조반정시 불에 탔으나 1647년 다시 중건되었다. 그후 창덕궁에서는 효종·현종·영조가 즉위식을 가졌으며 사도세자의 죽음도 본궁에서 일어났다. 1833년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으며, 1917년에도 한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19년 중건되었다.

본 의례는 이 가운데 1833년 화재로 소실된 주요건물 大造殿<sup>4)</sup>·熙政堂<sup>5)</sup>·澄光樓<sup>6)</sup>와 그 주변의 回廊을 복구한 사업이다. 먼저 의례의 목록은 座目, 時日, 圖形, 承專, 物力區劃, 移文, 來關, 稟目, 甘結, 實入, 賞典, 工匠, 儀軌 순서이다.

「座目」에는 공사를 담당하였던 主務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提調에 兼戶曹判書 趙萬永, 郎廳에 戶曹正郎 李衡在·李穆遠, 別看役에 前縣監嘉義 洪應燮, 前中軍嘉善 姜舜五, 看役에 牌將崇政 安順吉·嘉善 金再興, 都牌將에 資憲 朴道性·嘉善 孫大亨, 牌將에 嘉義 金舜明·嘉善 朴東寓·折衝 池景撤·朴泰勳, 朴煥奎, 出身 李壽亨·李熙進·金正宅, 閑良 千再澈·姜繼璜·姜錫範, 各所牌將에 嘉義 金繼雄 등 20인, 衛將에 嘉善 魯學會·李東鉉, 計士에 韓宜直·崔必善·李惟冕·崔永在·李鎮宇·李宗赫·李圭載·尹得淵·洪勉惟·崔信明, 書吏에 李進永·趙完鬮·金鎮恒·蔡景民·高宅俊·安命禧·尹復謙, 庫直에 裴仁根·張漢椽, 使令에 李春三 등 3명, 使喚旗手에 朴厚成 등 27명, 文書直에 金信元, 私庫直에 重玉 등 2명, 官使喚에 春得 등 25명, 繕工監匠人色書員에 劉相俊, 別工作書員에 嚴鎰殷, 所掌書員에 朴敬植의 이름이 적혀 있다.

「各項時日」에는 창덕궁의 전각 및 회랑 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일지가 기록되어 있다.

- 3) 이장근, 1993년 앞책 ; 《궁궐지》〈奎 3950〉 전 5책 가운데 3책 〈창덕궁〉 편 참조.
- 4) 창덕궁 내전의 正堂으로 《宮闕誌》에는 「熙政堂 북쪽의 坤殿 正堂이다. 無椽閣으로 남문은 宣平門, 동문은 含光門, 서문은 慶極門이다」고 하였다. 회정당에 위치한 연혁으로는 ① 성종25년 12월 성종이 이곳에서 승하하다. ② 인조27년 5월 인조가 이곳에서 승하하다. ③ 효종10년 5월 효종이 이곳에서 승하하다. ④ 순조9년 8월 翼宗이 이곳에서 탄생하다. ⑤ 순조33년 화재가 발생 34년에 興福軒등에서 澄光樓까지 370間을 중건하다 등이다.
- 5) 「대조전 남쪽의 편전으로 왕의 觀事之所이다. 현종15년 熙政堂池 안에 연꽃이 만발하였고, 순조35년 翼宗이 이곳에서 승하하다」고 기록되어 있다(《宮闕誌》 참조).
- 6) 「대조전 뒤쪽으로 지어진 便殿으로 二層樓이다. 上層이 澄光樓 下層은 景薰閣이다. 앞에 우물이 있다」(《궁궐지》 참조).

「1833년 10월 27일 목재를 마련하여 役을 시작한다. 10월 28일 巽時 터를 개축한다. 11월 15일 辰時 定礎하고 11월 26일 辛時 大造殿·熙政堂·澄光樓의 기둥을 세운다. 12월 4일 申時 大造殿 熙政堂·澄光樓의 상량식을 하고 1834년 9월 28일 役을 마친다」.

「承傳秩」항목에는 공사에 관련한 임금의 전교와 啓文이 실려 있다. 1833년 10월 17일 「昌德宮 실화로 大造殿·熙政堂 및 월랑이 모두 불타고 담장 등이 불에 그슬렸다. 이어 澄光樓·玉華堂·養心閣도 모두 불에 탔다」는 병조의 계문과 이에 대하여 「大造殿, 熙政堂은 평상시 전각처럼 사용했으니 즉시 재건해야 한다.」는 전교로 시작하여 物力の 준비과정(21일, 22일)·인원차출(10월 26일, 27일, 11월 1일)·營建都監事目<sup>7)</sup> 마련(11월 1일)·吉日선택(11월 3일), 상량문 제술(11월 13일)등 계문과 이에 대한 傳敎로 구성되어 있다.

「營建物力區劃數」에는 공사에 소용된 物力の 조달 방법과 액수<sup>8)</sup> 각 아문의 貨劃數등이 기록되었다. 기록이 매우 자세하므로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운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移文秩」에는 공사 진행 중 각 관청 사이에 오간 공문서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 1883년 10월의 「昌德宮 營建物力 區劃은 선혜청 7만냥, 금위영 5천냥, 어영청 5천냥, 병조 1만 5천냥이니 이를 급히 수송할 것」의 내용으로 선혜청·금위영·어영청·병조로 보낸 공문 내용으로 시작하여, 이듬해 10월 창덕궁 건물의 영건에 필요한 벽돌(磚石)을 보낼 것을 청하는 이문이 기록되었다.

「來關秩」항목에는 官府 相互間에 授受되는 官用文書를 수록하였다. 1883년 12월 三道 統制使의 「昌德宮 營建에 소용되는 樑木을 급주히 구하기 어려웠으나 내년 봄에도 대목으로 大樑을 삼아야 하니 안면도와 호남 제도에서 길이 30척 지름 3척짜리를 배어 수송하겠다」는 공문으로 시작하여 이듬해 3월 삼도통제사의 「昌德宮 營建에 소용되는 목재 4개를 조운선에 실어 보내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稟目秩」에는 各樣 匠人 一日 工錢式, 諸色 工匠等 助役式과 영건 목재의 貿易 기준<sup>9)</sup>

7) 事目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都監은 昌慶宮 주자소에 배설한다. ② 營建 物力을 따로 區劃한다. ③ 堂上, 郎廳의 印信은 호조의 것으로 한다. ④ 牌將으로 일에 대해 잘 아는 자를 都監이 分定하면, 각 군문은 해당자를 보낸다. ⑤ 각읍 공장은 물론 액정서, 제 궁가, 각 아문 소속의 공장은 예에 의거 사역한다. ⑥ 목석 수송 차량은 한성부 및 각 군문 것을 이용한다. ⑦ 治木, 治石시 필요한 煉鐵, 冶爐는 임시로 가건물을 설치하는데, 치목소 근처에 마련토록 한다. ⑧ 營建時 사용되는 흙은 朝班의 빈 터에서 땅을 파고 채취한다. ⑨ 미진한 사항은 차후 계속 마련한다.

8) 嶺南貢蔘價 38,400량, 關東貢蔘價 46,080량, 四都甲貢價 17,876량 4전, 內局燕價價折半 11,229량 4전 2분, 日下堆鮮減貢價 26,630량 4전, 關東減蔘 餘減貢蔘價 29,465량 8전, 嶺南漕餘錢 10,000량, 禁衛營停番錢 65,217량, 御營廳停番錢 65,183량 등으로 이상 備局 區劃 합계가 錢 310,083량 2분이었다.

9) 大不等 개당 12량, 接柱 개당 6량, 體木 개당 8량, 宮材 개당 3량 2전, 扇子大椽 개당 3량, 質大椽 개당 1량 6전, 次大椽 개당 1량 2전이다.

10) 警看役 1인당 마 9두(錢 2량 4전), 木棉 3필(錢 6량), 錢 3량, 牌將 1인당 錢 6량, 計士, 서리, 1

및 각 도감의 매월 料布<sup>10)</sup>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장인들의 동원체제 및 17세기 이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던 雇役制의 현황을 연구할 수 있다.

「甘結秩」에서는 1883년 10월 영건도감에서 공조, 제용감, 선공감, 장흥고, 唐沙哭契에 내린 감결 「明日 밝기 전에 昌慶宮 주자소에 書案 3坐, 硯匣 3坐, 紫硯 3面, 硯滴 3箇, 黃筆 5柄, 眞墨 3丁, 涼注紙 1卷, 書板 3部, 行擔 1部, 子具暨 1部, 牧丹屏 3坐, 地衣 5浮를 갖다놓도록 할 것」에서 시작하여 이듬해인 1834년 3월 삼영문에 내린 감결 「영건 소용의 木物을 車馬로 여러번 나누어 運送할 것」까지 주로 영건도감에서 각도의 아문에 보낸 문서를 기록하였다.

다음 「實入」항목에는 구체적으로 공사에 사용된 물력의 예를 기록했다. 몇가지만 살펴보면, 大造殿·興福軒·隆慶軒·清香閣·集祥門·慶極門·水刺間에는 6척5촌 石柱 6과, 4척5촌 石柱 2과, 4척 石柱 4과, 3척 柱礎 4과, 2척 5촌 柱礎 4과, 2척 柱礎 18과, 1척 7촌 柱礎 53과, 9척 5촌 耳機石 6과, 8척 步石 5과, 6척 5촌 步石 2과, 6척 步石 5과 등이다. 여기에는 營建都監匠料 및 實入雜物折價數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 공사의 경비내역과 크기를 알 수 있다. 1833년 창덕궁의 공사규모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사 품목과 소요액

품목	소요액
匠料	71,980냥
木物價	24,760냥
石子價	5,460냥
鐵物價	10,830냥
彩色漆物價	3,780냥
瓦甎價	7,640냥
窓戶價	2,870냥
紙席價	2,690냥
車馬運價	8,500냥
雜物居	4,700냥
合計	143,210냥

「賞典」에는 공사에 참여하였던 책임자 및 役夫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提調兼戶曹判書 趙萬永, 郎廳戶曹正郎 李衡在·李穆遠, 熙政堂·大造殿·澄光樓의 上樑文 製述官 洪爽周, 書寫官 大護軍 李翊會·行戶曹判書 朴宗薰, 書寫官 廣州府留守 金履

인당 미 9두(錢 2량 4전), 錢 2량, 庫直 1인당 미 9두(錢 2량 4전), 錢 2량, 使令 1인당 미 8두(錢 2량 1전 3푼), 錢 2량, 私庫直, 文書直, 官使喚 1인당 미 3두(錢 8전), 錢 2량, 使喚, 旗手 1인당 錢 4량이다.

載이다. 이하 大造殿·熙政堂·澄光樓·景薰閣·玉華堂·隆慶軒·興福軒·養心閣 의 懸板書寫官의 명단이다. 이외에도 別看役 2인, 看役牌將 2인, 都牌將 2인, 牌將 12인, 各所牌將 22인, 衛將 3인, 看役待令 5인, 書記 1인, 御筆模寫書寫官 5인 이하 木手都邊首, 石手都邊首, 木手, 石手, 船匠, 脍瓦匠, 泥匠, 刻手匠, 木鞋匠, 木引瀾匠, 畫員, 畫師, 泥匠, 塗覓匠, 小木匠, 冶匠, 朴排匠, 鞍子匠, 眞漆匠, 付金匠, 機械匠, 鐵綱匠, 假漆匠 등 장인 수백명의 명단과 賞物이 기록되었다.<sup>11)</sup>

「儀軌」항목은 공사 진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공문서 기록소를 설치한 것인데, 1834년 10월 「본 도감의 일이 이미 끝났으니 의궤사목을 각 도감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傳敎에 의하여 營建都監儀軌廳事目<sup>12)</sup>을 마련하고 총 8건의 의궤를 작성하였다.

의궤는 등록과 함께 공문서 양식 중 가장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실록이나 기타 연대기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생생한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특히 영건도감의례류는 공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므로 공사비의 사용처, 장인 등의 力役 동원체제 기타 당시 수공업 상황 등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준다 하겠다.

11) 의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천한 장인계층의 명단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실록이나 문집류 등은 모두 지배층에 의한 주요 기사만 기록하여, 하층민의 동태나 생활을 살피는데는 부족하다. 그러나 의궤는 工事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장인들의 力役 동원체제 그리고 分業 체제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장인의 종류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어떠한 장인(직업)이 많이 나타나고 중요시되는가를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어 산업(기술상)의 발달에 따른 직업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다.

12) ① 處所는 戶曹別例房으로 마련할 것 ② 郎廳은 戶曹正郎 洪鐘英을 임명할 것 ③ 堂上郎廳 印信 一顆를 이어 쓸 것 ④ 儀軌는 8건을 제작 奎章閣, 戶曹, 禮曹, 春秋館, 四史庫에 각각 1부씩 비치할 것. ⑤ 사용되는 紙筆墨과 감물은 해당 관청서 진배할 것. ⑥ 畫員 一人은 호조에서 급료를 지급할 것. ⑦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 등이다.